

세계 데킬라 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2010년 데킬라 소비량은 1,912만 상자(1상자=9리터)로 2009년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데킬라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보드카와 함께 소비증가율이 가장 좋은 증류주 종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데킬라 역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8년과 2009년은 소비가 주춤하였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높은 데킬라 시장 구조의 특성상 경기불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미국 기준으로 데킬라 평균가격은 750ml당 18달러 수준으로 보드카, 럼, 진의 평균가격인 10달러 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 다행히 데킬라 소비량은 2010년에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표 1〉 2010 세계 상위 10개 데킬라 제품

단위 : 1,000상자 (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7	2008	2009	2010	09-10
1	JOSE CUERVO	Tequila Cuervo	7,265	7,190	7,050	6,795	-1.0%
2	SAUZA	Tequila Sauza	3,210	3,125	2,675	3,100	15.8%
3	PATRON	The patron Spirits Co	1,630	1,700	1,740	1,760	1.1%
4	EL JIMADOR	Tequila Herradura	920	1,015	1,095	1,190	8.5%
5	CABRITO	Tequila Centinela	665	695	750	945	26.1%
상위5개 제품 소계			13,685	13,725	13,310	13,970	5.0%
6	CAZADORES	Tequila Cazadores	600	600	545	600	10.5%
7	CASCO VIEJO	Tequila Supremo	680	675	600	600	0.5%
8	MONTEZUMA	Sazerac Co	590	590	555	550	-0.5%
9	JUAREZ	Luxco	435	470	485	525	8.2%
10	Don Julio	Tequila Cuervo	325	315	300	300	1.0%
상위10개 제품 소계			16,325	16,380	15,790	16,550	4.8%
그외 제품			2,555	2,590	2,515	2,575	2.5%
총 계			18,875	18,975	18,300	19,125	4.5%

〈표 2〉 2010 세계 상위 10개 데킬라 수입국

단위 : 1,000상자 (1상자=9 Liter)

순위	국가	판매량						증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5-10	09-10
1	미 국	9,639	11,877	11,212	11,954	12,016	13,149	6.4%	9.4%
2	독 일	656	587	633	592	658	867	5.7%	31.8%
3	스페인	208	225	594	374	343	390	13.3%	13.5%
4	프랑스	216	245	289	298	255	298	6.6%	17.1%
5	캐나다	116	119	141	147	150	264	17.9%	76.7%
상위 5개국 소계		10,836	13,053	12,868	13,366	13,421	14,968	6.7%	11.5%
6	영 국	225	117	137	124	142	145	-8.5%	2.0%
7	러시아	61	120	113	180	93	136	17.6%	46.1%
8	일 본	93	99	128	118	152	130	6.9%	-14.4%
9	파나마	49	66	93	100	122	117	19.0%	-4.7%
10	칠 레	30	33	57	40	63	105	28.7%	66.0%
상위 10개국 소계		11,293	13,487	13,396	13,929	13,993	15,601	6.7%	11.5%
기타 국가		1,715	2,078	1,618	1,336	1,100	1,274	-5.8%	15.8%
총 데킬라 소비량 (멕시코 제외)		13,008	15,565	15,015	15,265	15,093	16,874	5.3%	11.8%

※ 데킬라 원산지인 멕시코는 제외

국가별로 보면 데킬라의 본고장인 멕시코와 미국에서 전 세계 데킬라 소비량의 대부분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데킬라를 소비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비중이 높아 판매량 뿐만 아니라 매출액면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경기불안에도 불구하고 데킬라 소비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디아지오의 '호세 쿠엘보(Jose Cuervo)'가 345만 상자가 판매되며 부동의 1위를 기록중이며, 그 뒤를 '페트론(Petron)', '사우자(Sauza)', '1800' 등이 잇고 있다. 한편 1, 2위 제품인 호세 쿠엘보와 페트론의 판

〈표 3〉 2010 미국 상위 5개 데킬라 제품

단위 : 1,000상자 (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7	2008	2009	2010	09-10
1	JOSE CUERVO	Tequila Cuervo	3,870	3,780	3,580	3,450	-3.6%
2	PATRON	The patron Spirits Co	1,580	1,660	1,680	1,700	1.2%
3	SAUZA	Tequila Sauza	1,455	1,445	1,410	1,600	13.5%
4	1800	Proximo Spirits	505	520	535	690	29.0%
5	MONTEZUMA	Sazerac Co	580	580	545	545	-
상위 5개 제품 소계			7,990	7,985	7,750	7,985	3.0%

매량은 2008년 이후 감소 또는 현상유지 상태인 반면, 사우자와 1800의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호세 쿠엘보를 생산하고 있는 디아지오는 'Jose Cuervo 250 Aniversario', 'Jose Cuervo Reserva de la Familia' 등 새로운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우자를 보유하고 있는 빔 글로벌(Beam Global Spirits & Wine)은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Hornitos', 'Tres Generaciones' 등 용설란(Agave) 100%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10년 멕시코의 데킬라 소비량은 687만 상자로 2009년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양으로 멕시코에서는 경제위기와 신종플루 그리고 마약문제와 관련되어 국경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고로 인해 2009년 데킬라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멕시코 1위 데킬라 제품은 '사우자(100Anos, Hacienda, Hornitos, Conmemorativo, Tres Generaciones포함)'로 2010년 95만 상자가 판매되었다. 그러나 사우자의 판매가 2007년 이후 감소한데 반해 2위 제품인 '카브리토(Cabrigo)'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어, 선두 수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카브리토는 2007년 연 65만 상자가 판매되며 멕시코내 4위 데킬라 제품이었으나 2010년 91만 상자까지 판매를 늘리며 2위에 올랐다. 그 외 호세 쿠엘보와 엘 히마도르(El Jimador)가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2010 멕시코 상위 5개 데킬라 제품

단위 : 1000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7	2008	2009	2010	09-10
1	SAUZA	Casa Pedro Domecq	1,225	1,165	920	950	3.1%
2	CABRITO	Tequila Centinela	655	680	730	915	25.3%
3	JOSE CUERVO	Tequila Cuervo	910	905	875	900	2.5%
4	EL JIMADOR	Tequila Herradura	795	810	820	860	4.5%
5	Gran Centenario	Tequila Cuervo	565	585	600	600	0.5%
상위 5개 제품 소계			4,145	4,145	3,845	4,220	7.0%
기타제품			2,780	2,710	2,630	2,650	0.8%
총 계			6,925	6,850	6,575	6,875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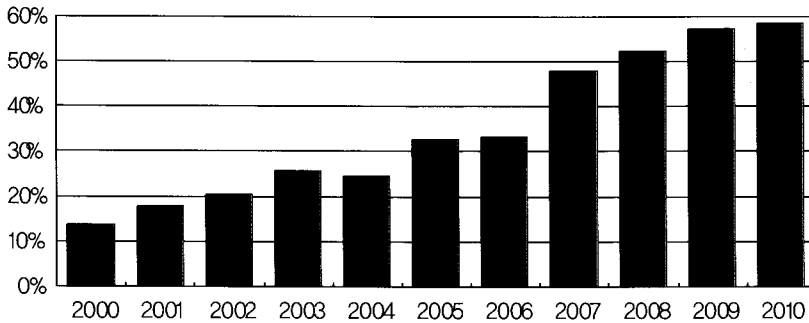
그 외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 러시아, 칠레 등에서 눈에 띄게 데킬라 소비가 늘고 있다. 캐나다의 데킬라 소비는 전년에 비해 76.6%, 러시아는 46.1%, 칠레는 66.0% 증가하였으며, 세계 3위 소비국인 독일도 소비량이 31.8% 증가하였다. 한편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데킬라 수입량 10위 안에 든 일본의 경우 2010년 소비가 전년에 비해 14.4% 감소하였다. 2010년 데킬라 수입량 10위권 내의 국가들 중 소비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곳은 일본과 파나마가 유일하다. 한편 상위 10개국 전 세계 수입 데킬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5%로 대부분의 소비가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설란을 100% 사용하는 프리미엄 데킬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데킬라 시장에서

100% 용설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0년의 13.8%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용설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용설란은 노동집약적이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재배 특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을 맞추는데 애를 먹고 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용설란 재배를 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데 5~10년 정도가 소요된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00대 초반 데킬라 제품의 프리미엄화에 따라 용설란 수요가 급증하며 용설란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용설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름바가 있으며, 2008년에는 용설란 과다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이에 많은 수의 용설란 재배자들이 옥수수와 같이 수익성이 좋은 곡물 재배로 전향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림 1〉 총 데킬라 제품중 100%용설란 제품의 비중



이와 같은 현상은 다시금 용설란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한편 대형 데킬라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용설란 재배농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재배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용설란 공급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중소 업체들은 용설란 부족이 발생할 경우 원료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용설란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의 데킬라 제조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 이에 데킬라 제조업체들은 항시 용설란 공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데킬라시장은 아직까지 그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충성심이 강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을 위시로 아시아에서도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제 경기불안에서 벗어남에 따라 데킬라의 소비 역시 과거와 같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Impact' 지 2011년 5월호